

# 지역사회 풀뿌리조직의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활동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 -강원도 이장·통장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Suicide Prevention Gatekeeper Activity Participation of Community Grassroots Organizational Leaders in Gangwon Province

김정유\*, 황정우\*, 이동하\*, 이강욱\*\*  
강원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강원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Jung-Yoo Kim(corea-yes@nate.com)\*, Jung-Woo Hwang(kangmhch@hanmail.net)\*  
Dong-Ha Lee(azulfuego@naver.com)\*, Kang-Uk Lee(kuleemd@kangwon.ac.kr)\*\*

#### 요약

본 연구는 지역사회 풀뿌리조직으로 대표되는 이장·통장의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활동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강원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장·통장 29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이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활동 참여를 수행의도와 개입수준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들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던 참여 동기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수행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 동기로는 '이장·통장으로서의 사명감', '활동에 대한 혜택과 보상', '자살예방이라는 의미와 취지', '강원도의 정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입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 동기로는 '공무원의 권유', '자살예방이라는 의미와 취지'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풀뿌리조직의 자살예방 활동 참여와 관련된 시사점과 향후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 **중심어** : 자살예방 | 게이트키퍼 | 이장·통장 | 풀뿌리조직 |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uicide prevention gatekeeper participation of 299 grassroots organizational leaders in Gangwon province. For this purpose, participation of activities of suicide prevention gatekeeper was classified into performance intention and intervention level. Performe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y setting participation motives which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participation of suicide prevention gatekeeper as independent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participation motives affecting performance intention were a sense of mission as a leader, benefits or rewards for activities, the meaning and purpose of suicide prevention, government policy. And participation motives affecting intervention level were invitation of public officials, the meaning and purpose of suicide preven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implications for the participation of suicide prevention activities in community grassroots organiz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activation.

■ **keyword** : Suicide Prevention | Gatekeeper | Community Leader | Grassroots Organization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사회의 자살문제는 매우 심각하기에 사회문제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다행히 꾸준히 증가하던 우리나라의 자살사망자 수는 2011년 15,906명을 정점으로 2016년 13,092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1]. 하지만 이 수치는 2016년 한해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수인 5,150명보다 많으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여전히 1위를 기록하고 있다[1][2]. 강원도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자살률로 비교하면, 2016년 기준 전국 21.9명 비해 월등히 높은 25.2명으로 최상위권이다[1].

자살은 예방이 가장 효과적이고 최선의 해결방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에서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설립된 후 본격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자살예방사업이 추진되었다[3]. 2012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통해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개입 체계구축을 위한 우선순위에 따른 실행 전략 구축을 발표한 바 있다[4]. 이에 강원도에서는 2010년에 강원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개소하면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4년 센터 내 자살예방팀을 자살예방센터로 승격시켜 자살예방사업을 보다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하였다[5].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자살예방사업은 자살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이나 캠페인과 같은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 자살예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자살 위험성이 높은 대상을 발굴해 적절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살의 원인은 정신질환, 사회적, 경제적 문제 중 어느 하나라고 말하기 어려운 매우 복잡적이라고 할 수 있다. Durkheim은 자살에 대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의 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6].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심각한 것은 급변한 사회에서 서로 의지하고 지지해 주었던 전통적인 공동체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7]. 특히 노인층에 있어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고령사회로의 빠른

진입으로 전통적인 가족 관계 해체, 사회적 고립의 증가로 인한 여러 노인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강원도의 경우, 독거노인 인구비율이 2015년 전국 평균 독거노인인구 비율 7.4%에 비해 월등히 높은 9.9%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8]. 노인 자살은 오랜 시간 우울을 매개로 하여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거나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우울 상태로 빠져 자살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9]. 이는 역으로 자살문제 해결에 사회적 지지망 형성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기존 가족 중심의 전통이 무너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 사회 기반의 포괄적 지지체계가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여러 지지체계 중 그 역할이 비교적 잘 수행되고 있는 것이 이장·통장 제도이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의 핵심 추진체로 역할을 한 이장·통장제도는 현재까지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며 도농 복합지역이 많은 강원도에서는 지역주민에게 그 영향력이 한층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장과 통장은 지역 주민의 민원을 수렴하거나 사정이 어려운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읍·면·동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지역 밀착형 풀뿌리조직이다. 또, 이들은 지역 환경과 주민 사정에 매우 밝고, 활동수당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재임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사회에 무한한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10]. 이런 이유로 이장과 통장은 지역 사회 내에서 리더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지역 주민의 지지체계 역할에 기여도가 높다.

실제로 2011년부터 서울 노원구에서는 통장을 보건복지도우미로 양성하여 지역 내 독거노인에 대한 자살예방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11]. 또 2014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생명지구대’라는 이름으로 통장들을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로 활용하여 자살예방 캠페인,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의뢰활동 등을 하는 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이 성과를 거둬 광주광역시 5개구 전체로 확대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12]. 그러나 국내에서 이들 지역 외 이장·통장을 자살예방 활동에 적극 활용한 경우는 실제로 많지 않다.

강원도에서는 심각한 자살문제가 더 이상 일부 기관

만의 노력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마을단위 리더인 이장과 통장을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로 양성하여 지역 내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관리를 위한 이장·통장 생명사랑지킴이 양성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다[5]. 이렇게 3년 동안 강원도에서 주도하는 정책 사업으로 이장·통장 생명사랑지킴이 양성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강원도 내 4,200여명의 이장·통장들에게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활동을 보다 더 독려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알게 된다면 본 사업을 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그 파급효과 또한 클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풀뿌리조직으로 대표되는 강원도 이장·통장 생명사랑지킴이를 대상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 1. 자살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우리나라의 심각한 자살문제 해결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국가부처뿐만 아니라 민간의 많은 기관, 단체에서 자살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는 근거에 기반한 표준화된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을 위하여 임상적 문제에 대하여 객관적인 연구결과, 연구방법론에 의하여 효과성이 입증된 프로그램에 대한 자살예방 프로그램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13].

하지만 아직도 일선 자살예방 현장에서 자살예방 교육이나 프로그램은 그 대상에 따라 강사가 자체적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강사의 역량에 따라 그 효과의 편차가 큰 것도 사실이다. 또 자살예방 교육은 교육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내용 또는 교육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거나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동기를 충분히 유발하지 못하여 주입식 교육이 수동적으로 이뤄진다는 점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14]. 자

살예방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김기현 등의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15]에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지 않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는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자살률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자살예방 전문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상황도 한몫했다[16].

자살이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자살예방 대책이 마련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자살예방 사업은 일방적인 교육을 통한 자살의 심각성을 알리는 방식의 간접적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살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의 방향을 지식 및 정보전달의 수준을 넘어서, 실제 자살예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직과 인력들이 자살위험이 있는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고 자살예방 전문기관에 연계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이트키퍼 양성사업이 전사회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 2. 자살예방을 위한 게이트키퍼(gatekeeper)활용

게이트키퍼는 심신의 문제가 있는 사람을 관련된 개인이나 기관에 의뢰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 자살예방 분야에서 생명사랑지킴이로 불리고 있으며, 주변의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주변의 자살의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를 발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에 연계하는 것은 자살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다. 게이트키퍼는 정신건강에 취약한 대상에게 관심을 줌으로써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과 사회적 지지를 높여줌으로써 자살예방의 효과가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17][18] 이미 많은 외국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19-21]. 최윤정과 원미라의 연구[22]에서도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게이트키퍼가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은정과 김희숙의 연구[23]에서도 게이트키퍼가 자살위험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게이트키퍼를 자살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 의뢰하여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

고 자살시도자 사후 관리에 게이트키퍼를 활용한 연구에서도 그 효과성이 확인되었다[24].

또한 게이트키퍼는 단순히 자살의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를 연계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자체로 자살예방 홍보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게이트키퍼로 활동하기 위한 사전 교육을 통해 자살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게이트키퍼로 활동하면서 주변에 자살문제에 대해 알리는 역할을 이차적으로 수행하기도 한다.

한편 게이트키퍼 스스로에게도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의 민감성 및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증가하여 이전보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인하여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효과도 있었다[25].

### 3.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자살예방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자살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26]. 그만큼 자살문제 해결에 있어서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 지역사회 중심의 네트워크를 통한 사례관리가 주목받기 시작하였다[27]. 하지만 아직도 한국의 자살예방에 대한 노력은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관련기관 등과 같은 특수한 목적을 가진 집단에 의해 상호협조 없이 단독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각 집단이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자살예방에 있어서 효과적이지 않다[28]. 따라서 최윤정 등[22]은 현재 우리나라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살예방관련 사례관리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취약 계층의 정신 건강 예방 및 관리라는 큰 체계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제한된 정신건강 관련 예산이나 인력의 부족으로 개별적이면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효율적인 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강원도에서의 자살예방 관련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춘천에서 추진된 ‘춘천 정신건강 지역사회지

체계 구축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자살문제를 포함한 정신건강문제가 있는 지역 주민에게 복합적인 문제 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들 간의 공식,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당시에 이 사업은 혁신적인 사업으로 인식이 되었으며, 사업에 대한 결과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29]. 이는 강원도에서도 자살예방에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며,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무형의 경험이 아직 남아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측면에서 이장과 통장은 공식적이며 비공식적인 자원의 특성을 둘 다 가지고 있다. 지역 주민과 행정기관과의 연결책의 역할 수행과 같은 공식적인 역할과 지역 사회에서 봉사정신과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이웃의 어려움을 듣고 지원해주는 비공식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이장과 통장의 활동은 강원도 노인들의 이웃과 접촉빈도를 높여주는 것으로서 이들의 자살사고를 완충하는 조절변수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30]. 이렇듯 이장과 통장은 농어촌 특성을 지닌 강원도 지역사회에서 자살예방 네트워크의 핵심 위치에 존재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4. 이장·통장 생명사랑지킴이 양성사업

강원도의 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2011년 37.7명을 정점으로, 2012년 31.4명, 2013년 32.0명, 2014년 29.9명으로 전국 최상위 수준이다[1]. 이처럼 높은 자살률 감소를 위한 대책으로 자살예방 캠페인, 자살예방 교육 등에 초점을 두고 자살예방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자살예방사업들에 대한 효과성 측면에서의 의문점이 있다. 이에 강원도자살예방센터에서는 높은 강원도의 자살률 감소를 위하여 지역 사정에 밝은 이장과 통장을 활용하여 자살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 전문기관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밀착형 자살예방사업 “이장·통장 생명사랑지킴이 양성사업”을 기획하게 되었다.

강원도 이장·통장 생명사랑지킴이 양성사업은 2015년 강원도와 강원도이통장연합회, 강원도의회, 강원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강원도 내 18개 시군 이통장연합회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가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5]. 현재 이장, 통장 약 4,200여명 전원을 시장, 군수 명의로 생명사랑지킴이로 위촉하였으며, 이장, 통장의 생명사랑지킴이 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이장, 통장 관련 조례 개정 작업을 진행하여 강원도 내 10개 시군에서 이장·통장의 임무 항목에 생명사랑지킴이 활동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으며, 나머지 시군에서도 개정 작업에 있다[31]. 2017년 9월 기준 735명의 이장·통장이 생명사랑지킴이로 지역 내 자살고위험군 4,389명에 대해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32]. 이러한 자살예방 현장의 시도에 발맞추어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33]에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이장·통장을 우선적으로 활용한다는 추진과제가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연구대상자의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활동 참여(수행의도, 개입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와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정도, 직위, 재임기간)과 참여동기(공무원의 권유, 이장·통장으로서의 사명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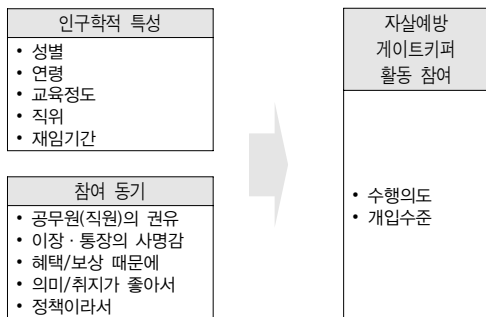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혜택/보상, 의미와 취지 때문에, 정책이라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그림 1).

####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7년 7월 현재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이장·통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3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강원도이통장연합회의 협조를 통하여 지역별 분포에 비례한 할당 표본 추출법을 사용해 표집하였다. 설문에 동의한 총 382명이 자기기입식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이중 불성실한 응답자 2명, 게이트키퍼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 81명을 제외한 총 299명을 최종 분석대상자로 선정하였다.

#### 3. 연구항목

본 연구에서 조사한 연구항목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교육정도, 직위, 재임기간을 포함하였다. 또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활동 참여는 수행의도와 개입수준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백종우 등(2014)의 연구[34]에서 자살예방교육프로그램이 게이트키퍼의 개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게이트키퍼의 개입을 현재의 자살과 관련된 지식과 게이트키퍼로서의 개입 여부, 그리고 추후 개입수행의도로 측정하였던 것에 근거하여 이장·통장 생명사랑지킴이에 맞게 구성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게이트키퍼의 수행의도는 주민이 자살 위험 상황 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지, 이장·통장들이 자살예방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개입수준은 게이트키퍼로서 관계기관과의 소통, 자살위험군 발견 시 대처방법 인지,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현재 실제 참여 수준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수행의도를 묻는 질문은 2문항으로 0점에서 6점 구간으로 총점범위 0점에서 12점이며, 개입수준을 묻는 질문은 3문항으로 0점에서 6점 구간으로 총점범위 0점에서 18점이다.

게이트키퍼 활동 참여동기 문항은 강원도 이장·통장 생명사랑지킴이 사업 담당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구성하였다. 문항은 “관계 공무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의 권유”, “이장·통장으로서의 사명감 때문에”, “활동에 대한 혜택과 보상 때문에”, “자살예방이라는 의미와 취

지가 좋아서”, “강원도의 정책이라서”의 총5문항으로 0 점에서 6점 구간으로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4. 통계분석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 변수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방법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게이트키퍼 활동 참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과 ANOVA검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고 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게이트키퍼 활동 참여 동기가 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자가 설정한 모델에 근거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SPSS 2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일반 특성에 따른 게이트키퍼 활동 참여의 차이

성별은 남성 76.3%, 여성 23.7%로 남성의 비율이 높았고, 연령은 60세 미만이 44.1%로, 교육정도는 고졸이 63.5%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또한, 직위는 이장이 52.8%, 통장이 47.2%으로 이장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재임기간은 1년 미만이 31.1%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활동참여(수행의도, 개입수준)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1].

2. 참여 동기와 게이트키퍼 활동 참여 간 상관관계

참여 동기와 생명사랑지킴이 활동 참여 간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표 2]. 수행의도와 ‘공무원(센터직원) 권유 때문에’(r=.189,p<.01), ‘이장·통장으로서의 사명감 때문에’(r=.255,p<.001), ‘자살문제 해결이라는 의미와 취지가 좋아서’(r=.342,p<.001)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활동에 대한 혜택/보상 때문에’ (r=-.183, <.01), ‘강원도의 정책이라서’(r=-.180,

p<.01)가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개입수준과 ‘공무원(센터직원) 권유 때문에’(r=.258,p<.001), ‘이장·통장으로서의 사명감 때문에’(r=.237,p<.001), ‘자살문제 해결이라는 의미와 취지가 좋아서’(r=.321, p<.001)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2].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활동 참여의 차이

특성	구분	N(%)	게이트키퍼 활동 참여			
			수행의도		개입수준	
			M±SD	t/F	M±SD	t/F
성별	남성	228 (76.3)	10.01±1.86	.053	11.26±3.39	-1.324
	여성	71 (23.7)	10.00±1.76		11.87±3.12	
연령 (세)	<60	132 (44.1)	10.05±1.88	.166	11.61±3.66	.685
	60~64	79 (26.4)	10.05±1.75		11.50±3.29	
	≥65	82 (27.4)	9.91±1.89		11.06±2.90	
	무응답	6 (2.0)	-		-	
교육 정도	중졸 미만	11 (3.7)	9.70±2.11	.776	10.60±3.10	2.664
	중졸	52 (17.4)	9.71±1.80		10.44±2.81	
	고졸	190 (63.5)	10.09±1.84		11.72±3.26	
	대졸	41 (13.7)	10.17±1.87		11.41±4.20	
	무응답	5 (1.7)	-		-	
직위	이장	158 (52.8)	9.99±1.88	-.164	11.32±3.45	-.455
	통장	141 (47.2)	10.03±1.79		11.50±3.20	
재임 기간 (년)	<1	93 (31.1)	9.90±2.00	.616	10.70±3.28	2.336
	1-2	53 (17.7)	9.83±1.97		11.36±3.41	
	3-6	80 (26.8)	10.22±1.66		11.74±3.14	
	≥7	73 (24.4)	10.06±1.71		11.97±3.45	

Independent sample t-test / One-way ANOVA

표 2. 참여 동기와 활동 참여 간 상관관계

구분	개입 수준	수행 의도	공무원 (직원) 권유	사명감 때문에	혜택 /보상 때문에	의미 /취지 좋아서	정책 이라서
개입 수준	1						
수행 의도	.456***	1					

공무원 (직원) 권유 때문에	.258***	.189**	1				
이장 /통장의 사명감 때문에	.237***	.255***	.319***	1			
혜택 /보상 때문에	-.047	-.183**	.044	.002	1		
의미 /취지가 좋아서	.321***	.342***	.204***	.291***	-.134*	1	
정책 이라서	-.041	-.180**	.159**	.083	.308***	-.064	1

\*\*\*p<.001, \*\*p<.01, \*p<.05 Correlation Analysis

### 3. 게이트키퍼 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게이트키퍼 활동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수행의도, 개입수준, 참여 동기 간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던 참여 동기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참여 동기가 수행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모델 1은 성별, 연령, 교육정도, 직위, 재임기간이 수행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모델 1에 투입된 변수들의 설명력은 0.5%였으며,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표 3. 수행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변수	모델1				모델2			
	B	$\beta$	t	p	B	$\beta$	t	p
성별	-.072	-.017	-.230	.818	.029	.007	.100	.921
연령	-.061	-.028	-.444	.657	-.066	-.030	-.523	.601
교육 정도	.149	.054	.854	.394	.044	.016	.274	.784
직위	-.001	.000	-.004	.997	-.007	-.002	-.028	.978
재임 기간	.040	.025	.414	.680	.046	.029	.526	.599
권유					.289	.109	1.812	.071
사명 감					.457	.168	2.792	.006**
혜택 보상					-.439	-.124	-2.122	.035*
의미 취지					.612	.220	3.720	.000***
정책					-.482	-.169	-2.858	.005**
상수 항	9.764				8.462			
R <sup>2</sup>	.005				.194			
$\Delta R^2$	-				.189			
F	.299				6.507***			

\*\*\*p<.001, \*\*p<.01, \*p<.05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sup>2</sup>=.005, F=.299, p>.05). 모델 2는 모델 1에 ‘공무원(센터직원)의 권유 때문에’, ‘이장·통장으로서 사명감 때문에’, ‘활동에 대한 혜택/보상 때문에’, ‘자살문제 해결이라는 의미/취지가 좋아서’, ‘강원도 정책이라서’를 추가로 투입해 수행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모델 2의 설명력은 19.4%였으며(R<sup>2</sup>=.194, F=6.507, p<.001), ‘자살문제 해결이라는 의미/취지가 좋아서’(β=.220, p<.001), ‘이장·통장으로서 사명감 때문에’(β=.168, p<.01)가 수행의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으며, ‘강원도 정책이라서’(β=-.169, p<.01), ‘활동에 대한 혜택/보상 때문에’(β=-.124, p<.05)는 수행의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3].

둘째, 참여 동기가 개입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모델 3은 성별, 연령, 교육정도, 직위, 재임기간이 개입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모델 3에 투입된 변수들의 설명력은 3.3%였으며(R<sup>2</sup>=.033, F=1.874, p>.05), 재임기간만이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β=.124, p<.05). 모델 4는 모델 3에 투입된 변수에 ‘공무원(센터직원)의 권유 때문에’, ‘이장·통장으로서의 사명감 때문에’, ‘자살문제 해결이라는 의미와 취지가 좋아서’를 추가로 투입하여 개입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모델 4의 설명력은 18.7%였으며(R<sup>2</sup>=.187, F=7.773, p<.001), 모델 3에서

표 4. 개입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

변수	모델3				모델4			
	B	$\beta$	t	p	B	$\beta$	t	p
성별	.586	.074	1.048	.296	.589	.075	1.127	.261
연령	-.166	-.042	-.674	.501	-.165	-.041	-.725	.469
교육 정도	.453	.091	1.443	.150	.216	.043	.739	.460
직위	-.450	-.068	-.941	.347	-.469	-.070	-1.051	.294
재임 기간	.357	.124	2.063	.040*	.380	.132	2.381	.018*
권유					.771	.159	2.682	.008**
사명 감					.514	.104	1.738	.083
의미 취지					1.421	.279	4.826	.000***
상수 항	10.056				6.708			
R <sup>2</sup>	.033				.187			
$\Delta R^2$	-				.154			
F	1.874				7.773***			

\*\*\*p<.001, \*\*p<.01, \*p<.05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와 마찬가지로 재입기간이 개입수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고( $\beta=.132, p<.05$ ) 아울러 ‘자살문제 해결이라는 의미와 취지가 좋아서’( $\beta=.279, p<.001$ ), ‘공무원(센터직원)의 권유 때문에’( $\beta=.159, p<.01$ )가 개입수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표 4].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로 활동하고 있는 이장·통장을 대상으로 게이트키퍼 활동 참여를 수행의도와 개입수준으로 구분하여 이에 영향을 주는 참여 동기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장·통장 게이트키퍼의 수행의도는 두 가지의 참여 동기에서 음의 상관관계 혹은 부적 영향력을 받고 있었다. 즉 이장·통장 게이트키퍼는 “활동에 대한 혜택과 보상”과 “강원도의 정책”을 동기로 인식할수록 활동 참여가 떨어졌다. 현재 강원도와 시군의 정책으로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 게이트키퍼 활동을 하고 있는 이장·통장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바[32], 이러한 정책을 통한 혜택과 보상을 참여 동기로 인식할 할수록 실제적인 수행의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향후 강원도의 자살예방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장·통장 게이트키퍼의 수행의도에 “의미와 취지가 좋아서”, “강원도의 정책이라서”, “이장·통장으로서의 사명감”, “활동에 대한 혜택과 보상” 참여 동기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이장·통장 게이트키퍼 활동의 의미와 취지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스스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향후 이들의 수행의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보여진다. 아울러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강원도의 정책, 활동에 대한 혜택과 보상은 이들의 수행의도에 부적 영향력이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장·통장 게이트키퍼의 개입수준에 “의미와 취지가 좋아서”라는 참여 동기와, “공무원과 센터직원의 권유”라는 참여 동기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아울

러 이장·통장 게이트키퍼의 개입기간도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부자극 요인인 공무원과 센터직원의 권유에 의해서 게이트키퍼 활동을 시작하고 내부자극 요인인 게이트키퍼 활동에 대한 의미와 취지를 깨닫고 이해하는 과정이 이들의 개입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또한 이장·통장의 개입기간이 길수록 이들의 개입수준이 높다는 것은 경험 많은 이장·통장을 게이트키퍼로서 지속 활용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실천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첫째, 자살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알리고 이를 위해 많은 노력과 활동을 할 수 있음을 이장·통장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35]에 따르면, 자살은 예방되어야 하며 자살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 우리의 자살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를 한다면 게이트키퍼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장·통장은 지역사회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로서의 최적의 조건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장·통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게이트키퍼 활동에 대한 권장이 진행된다면 그 효과는 클 것이다. 또한 우수 활동 이장·통장의 사례를 지역 언론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거나 연말 격려 차원의 포상 제도를 마련하여 활동을 지지해 주는 방안도 이들의 내적 동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둘째, 이장·통장의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활동의 실질적인 참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살예방 활동의 의미와 취지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스스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우선은 인적 전략으로서 관계 공무원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의 적극적인 권유와 독려, 물질 전략으로서 혜택과 보상 지급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물질 전략은 게이트키퍼 활동에 대한 인식이 없고 적극적이지 않은 이장·통장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의 초기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들이 실질적인 게이트키퍼로



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게이트키퍼 활동에 대한 의미를 찾고 사명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이 중요하다. 즉 시군구 단위에서 기존 중앙자살예방센터 [13]에서 인정한 자살예방교육, 게이트키퍼 양성교육(보고, 듣고, 말하기)을 이들 이장·통장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의 시간은 실제적인 사례를 다루고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의 장이 될 것이며 마을 단위의 자살위험 사례를 공유하고 의뢰 체계를 갖추어 가기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경로가 될 것이다. 아울러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맞춤형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군구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교육효과가 미흡한 편이며, 해외에서 개발된 교육프로그램들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14]. 이장과 통장은 비교적 연령대가 높고 지역사회의 특성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그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장·통장의 생애주기적 특성, 업무적 역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이들만을 위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이장·통장으로서 경력이 많은 마을의 리더가 지속적으로 게이트키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 광역시도, 시군 단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33]에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이장·통장을 우선적으로 활용한다는 추진과제가 포함된 바, 이를 실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공무원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장·통장은 마을 단위의 실제적 리더로서 연륜이 높고 기존의 수행해야 할 공식적, 비공식적 역할이 많은 분들이기에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의 젊은 요원들이 직접적으로 이들에게 접근하기에 한계점이 많다. 따라서 현재 자살예방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군구 읍면동의 이장·통장 지원부서와 협력하여야 하며, 협력단계 초기에는 정신

건강복지센터보다는 행정력이 있는 보건소 및 시군구 공무원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공식적인 행정력을 동원한 협력체계가 형성된 후에는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간담회, 활동에 대한 다양한 소통의 노력으로 비공식적이면서 응집력 높은 협력체계 형성도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강원도 이장·통장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현재 자살예방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장·통장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대상으로 연구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풀뿌리조직 자살예방사업의 근거자료로써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본다. 또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활동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이들의 주관적 참여 동기에 국한하였고 이를 측정하는 도구도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보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17.
- [2] OECD, *Suicide rates in Health status Data*, 2013.
-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2017.
- [4]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증진종합대책*, 2012.
- [5] [http://www.gwmh.or.kr/conurbation/01\\_vision.asp](http://www.gwmh.or.kr/conurbation/01_vision.asp)
- [6] 윤병철, “에밀 뒤르켐 자살론의 방법론적 논의,” 연구논문집, 제32권, 제1호, pp.161-176, 2003.
- [7] 김정유, 이동하, 황정우, 이강욱, “저소득층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강원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2호, pp.91-101, 2016.
- [8] 통계청, *독거노인 인구비율*, 2017.
- [9] Yeates Conwell, Paul R. Duberstein, and Eric D. Caine, “Risk Factors for Suicide in Later Life,” *Biological Psychiatry*, Vol.52, pp.193-204, 2002.
- [10] 한영수, 김필두, “통·리·반장제도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5권, 제1호, pp.25-45, 2003.

- [11] “노원구 통장님들, 자살방지 ‘생명지킴이’ 나선다,” 노원구청, 보도자료, 2011.
- [12] “광주시 3년 연속 자살률 전국 최저,” 광주광역시청, 보도자료, 2016.
- [13] <http://www.spckorea.or.kr/index.php>
- [14] 임세원, 오강섭,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적 접근,” 대한의사협회지, 제55권, 제4호, pp.349-355, 2012.
- [15] 김기현, 오병돈, 이경숙,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
- [16] K. Ha, “Can a Suicide Prevention Law decrease the suicide rate in Korea?,” J Korean Med Assoc, Vol.54, No.8, pp.792-794, 2011.
- [17] 최길순, 박대성, “노인환자의 자살충동과 가족지지 및 영성의 관계,” 한국노년학연구, 제18권, pp.51-60, 2009.
- [18] 최신애, 하규수,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요인-중증만성질환자 돌봄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6호, pp.265-279, 2012.
- [19] M. W. Lewis and A. C. Lewis, “Peer Helping Programs: Helper Role, Supervisor Training, and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Vol.74, Issue.3, pp.307-313, 1996.
- [20] A. R. TeoEmail, S. B. Andrea, R. Sakakibara, S. Motohara, M. M. Matthieu, and M. D. Fetters, “Brief gatekeeper training for suicide prevention in an ethnic minority population: a controlled intervention,” BMC Psychiatry, Vol.16, pp.1-9, 2016.
- [21] D. A. Lamis, M. Underwood, and N. D’Amore, “Outcomes of a Suicide Prevention Gatekeeper Training Program Among School Personnel,” Crisis, Vol.38, No.2, pp.89-99, 2017.
- [22] 최윤정, 원미라, “게이트키퍼(Gatekeeper)를 활용한 우울군 독거노인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효과-정신건강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23권, 제4호, pp.376-385, 2012.
- [23] 신은정, 김희숙, “또래지킴이훈련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자존감, 친구관계 및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제22권, 제3호, pp.241-251, 2013.
- [24] 강호엽, 김희숙, “게이트키퍼공감훈련이 게이트키퍼의 자기유능감과 자살시도자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효과,”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2016년 춘계학술대회, pp.471-484, 2016.
- [25] 김은주, 윤가현,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동료상담의 효과,” 한국노년학연구, 제19권, pp.115-131, 2010.
- [26] World Health Organization, *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 Geneva, 2003.
- [27] 홍선미, 하경희, “지역사회 네트워크 중심 통합 사례관리에 대한 탐색적 연구-안산통합서비스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제11권, 제1호, pp.29-61, 2009.
- [28] 육성필, Jamesson K. Hirsch, “한국의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공동체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제16권, 제2호, pp.147-164, 2010.
- [29] 이강, “정신건강 지역사회지지체계 모델의 적용과 개발-춘천 지역사회정신건강 네트워크 사업의 사례연구,”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211-248, 2009.
- [30] 황정우, 이강욱, 김정유, 이동하, 김두명, “동거 및 독거노인의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과 대인관계의 조절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45권, 제1호, pp.36-62, 2017.
- [31] 강원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우리 아·통장 여러분이 생명사랑지킴이입니다*, 2016.
- [32] 강원도청 보건정책과, *2017년 3/4분기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사업 실적*, 2017.
- [33] 관계부처 합동,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2018.
- [34] 백종우, 조선진, 이수정, 오진영, 박종익, “한국형 표준자살예방교육프로그램 보고듣고말하기가 게이트키퍼의 개입에 미치는 영향,” 신경정신의학, 제53권, 제6호, pp.358-363, 2014.
- [35] 보건복지부, *2013 자살 실태조사*, 2014.

저 자 소 개

김 정 유(Jung-Yoo Kim)

정회원



- 2006년 2월 : 강원대학교 심리학  
과(문학사)
- 2015년 2월 : 한림대학교 사회복지  
지대학원(사회복지학석사)
- 2012년 3월 ~ 현재 : 강원도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관심분야> : 정신보건사회복지, 자살예방

황 정 우(Jung-Woo Hwang)

정회원



- 2012년 2월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  
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2016년 2월 ~ 현재 : 강원도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관심분야> : 정신장애, 회복, 행복, 자살예방

이 동 하(Dong-Ha Lee)

준회원



- 2015년 2월 : 강원대학교 정보통  
계학과(이학사)
- 2015년 1월 ~ 현재 : 강원도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관심분야> : 자료기반 통계분석, 데이터마이닝

이 강 욱(Kang-Uk Lee)

정회원



- 1989년 2월 : 서울대학교 의학과  
(의학사)
- 1994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석사)
- 2000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

- 2001년 3월 ~ 현재 :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 지역사회 정신의학, 자살예방, 재난정신  
의학